

“안전성 담보 못해” 일본인들도 오염수 방류 부정적

일본과 광주에 사는 일본인들 반응은

“일본서 수산물 소비 대폭 줄어...전세계 해양 생태계에 영향 끼칠 것
바다나 대기로 방출 말도 안되는 일...방사성 물질 가뉘서 관리해야”

광주와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24일 자국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강행하자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의견과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다수 일본인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지 반응도 전했다. 국가의 사 결정에 따르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국민 개인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이날 광주와 일본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2명과 6명에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의견을 묻자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서 22년째 살고 있는 오히라 츠나키(여·47)씨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 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사용된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로, 안전성은 미지수”라면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기위해 홍보하고 있지만 결코 신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선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뿐 아니라 전세계 해양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

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라씨는 일본에서도 환경·반핵단체, 시민사회 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꾸준히 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국민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쿄에 거주하는 마츠다(40)씨는 “특히 국민도 후쿠시마현에서 나온 수산물을 사려 하지 않아 수산업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번 방류로 그 파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사카에 사는 카와이소라(여·23)씨도 “오염수 방류로 바다 생물과 어업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마오카미키(여·24)씨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바다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인체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년간 원전 피해 회복을 위해 쏟은 노력이 정부의 오염수 방류로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도쿄 사이타마현에 사는 50대 후타츠카씨는 “후쿠시마는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을 당연한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야마현에 사는 나카가와 미유키(여·62)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시발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시작되면 더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바다와 대기로 방출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한국 국민과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나, 방류를 규탄하는 국제 여론은 반드시 확산할 것”이라 덧붙였다.

나카가와씨는 “방사성 물질은 극소량이라도 위험해 가뉘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다나 대기로 방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국민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은 실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ALPS처리오염수금지변호인단은 이날 8일 1차 후쿠시마 지방재판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도쿄전력과 일본이 오염수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 임박 주목

울산지검장 사의로 고검장급 5곳 공석...이르면 다음주 인사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광주고검장 등 대검 검사급 인사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울산지검장(56·사법연수원 26기)이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조종태(25기) 광주고검장과 이근수(28기) 제주지검장도 사의를 밝히고 검찰을 떠났다.

이들의 잇단 사퇴로 이르면 다음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등 검찰 인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검장급으로는 분류되는 간부 중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이 공석이다.

검사장급에서는 울산지검장 자리를 포함해 창원지검장, 제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

연수원 기획부장 자리가 비어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9~30기에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가 나올 예정이라는 점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사의 표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6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연수원 30기 중 처음으로 검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6월께 하반기 인사를 단행해왔지만,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주요 현안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예년보다 두 달 넘게 늦어진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달 초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다리 아래 폭우 고립 시민 구조
광주시 북구 임동 광운교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던 시민 3명이 24일 오후 1시 20분께 폭우로 인해 고립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구조대원들이 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남광주시장 상인들 “일본산 취급 않겠다”

올 겨울 생태 판매도 포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함에 따라 광주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에 방출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동구 학동의 남광주시장 수산물 점포 상인들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남광주시장은 80여개의 수산물 점포가 있는 광주 최대 수산물 시장이다. 그동안 상인들은 국내산 수산물을 위주로 취급했고 겨울철에만 일부 일본 수입 생물을 취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일본산을 아예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남광주시장에서 20년째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이승숙(여·61)씨는 겨울철 생태 판매수입이 전체 수입의 10%에 달하지만 생태 판매를 포기했다.

이씨는 “겨울 생태철에만 일본산을 조금씩 들여왔다”며 “하지만 올해 겨울부터는 생태조차 팔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파로 국내산까지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도.

남광주시장에서 20년째 횡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봉철(48)씨는 “최근 일본산 뿐만 아니라 국산 생선들도 국민들이 잘 먹으려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고통받는 상인들의 처지를 살피면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채용 미끼 수천만원 금품 받은 남구청 전 공무원 구속

공무직 채용 알선을 미끼로 지인으로로부터 수천만원 금품을 받은 광주시 남구청 전 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4일 남구청 전 공무원 직원 A(5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지인에게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A씨는 이 중 4500만원을 광주시 서구청 공무직 노조 위원장 B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지난 2021년부터 수 차례 채용 알선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3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는 등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9세 여아에 술 따르게 하고 집 유인 40대 징역형

광주의 한 공원에서 만난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미성년자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어린이공원에서 부모와 잠시 떨어진 B(9)양에게 접근해 “집에 인형과 종이학이 있는데 같이 가자”며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이공원 정자에서 B양에게 소주병을 건네주며 30~40분 가량 종이학에 술을 따르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양을 데려가려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으로 미숙한 여아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며 B양을 데려가는 것을 저지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점, 미성년자 유인범행은 다른 강력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